

# 연변의 첫 신형 스마트 도시 책방 연결에서 개장

독서 · 휴식 · 학습 · 소통을 즐길 수 있는 다기능 스마트 문화공간



6월 29일, 연변의 첫 신형 스마트 도시 다기능 책방이 정식으로 개장하면서 독자들을 맞이했다.

스마트 도시 다기능 책방은 서화사 회 건설을 추진하고 시민들 집 근처에 '문화거실'을 조성하며 광범한 군중들에게 양질의 편리한 독서 및 문화레저 봉사를 제공하고 공공문화 발전 성과를 더욱 많은 사람들이 향수하게 함과 동시에 공공봉사 고품질 발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데 취지를 두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및관광국에서 지도하고 연변도서관과 연결시신화서점에서 공동으로 기획한 스마트 도시 다기능 책방은 연결시신화서점 4층에 마련되었다. 료해에 따르면 책방은 단순한 서점



이 아닌 스마트화, 디지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독서, 휴식, 학습, 소통을 즐길 수 있는 다기능 스마트 문화공간으로 현대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콘텐츠, 스마트기기 활용을 통해 독자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독서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자동대출 시스템, 열골인식 결제, 스마트 검색 시스템,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등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독서 데이터 분석, 개인 맞춤형 독서계획, 온라인 독서 커뮤니티 등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 독서 경험을 개선하며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서적, 전자책, 오디오북 등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독서 관련 문화행사를 조직하여 독서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일년 내내 정기적으로 독자들을 위한 강연, 문화행사, 전시 등 활동을 펼쳐면서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음료수코너, 커피코너 등 레저공간도 설치하여 광범한 독자들의 다원화, 개성화 수요에 만족을 주게 된다.

스마트 도시 책방의 개장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고품질 디지털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민독서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며 '서화연변' 조성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들의 집 근처에 '문화거실'을 조성하고 공공독서 서비스의 '마지막 1킬로미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도시의 위상과 문화분위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주목할 만한 도시 문화 풍경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판식 당일 수심명의 독자들이 현장에서 디지털화 설비 및 관련 서비스를 체험하고 디지털화가 가져다주는 독서의 새로운 체험을 깊이 느꼈다.

/안상근기자

[독서노트]

■ 허지연

## 제목부터 호기심 생기는 《앵무새 죽이기》

작품의 원래 제목은 《To Kill a Mockingbird》로 Mockingbird는 미국에서만 사는 '흉내 지빠귀' 류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노래만을 불러주는 새라고 한다. 하여 주인공은 앵무새(흉내 지빠귀)를 죽이는 건 죄가 된다고 한다.

1930년대 미국 남부 도시 메이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심한 그곳에서 주인공 아버지 애티커스 핀치 변호사는 흑인 톰의 변호를 맡게 된다.

부래들리 괴롭히기

주인공 세 꼬마 스카웃, 쟈, 딜은 마을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은둔자-부래들리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그를 집 밖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온갖 활동을 펼치면서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음료수코너, 커피코너 등 레저공간도 설치하여 광범한 독자들의 다원화, 개성화 수요에 만족을 주게 된다.

톰의 재판

내세울 거라곤 오직 흰 피부 밖에 없는 밤 유얼과 그의 딸 마엘라 유얼, 그들은 톰이 마엘라 유얼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 톰의 변호를 맡게 된 애티커스변호사- 그는 흑인을 변호한다는 리유만으로 마을사람들의 비난을 받지만 '사법제도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해야 한다.'는 신념과 용기는 그로 하여금 톰의 재판을 포기하지 않게 한다.

애티커스변호사가 밝힌 강간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마엘라 유얼은 집에 아무도 없는 톰을 타서 집안일을 도와달라며 톰을 불러들였고 평소애 남을 돕는 걸 좋아하던 톰은 유얼네 집으로 들어갔다. 이때, 마엘라는 사심을 품고 톰에게 입맞춤을 하던 아버지 밤 유얼은 화가 난 나머지 마엘라 유얼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급기야 톰



이 자기의 딸을 강간하였다고 신고를 했던 것이다.

"난 지금껏 어떤 배심원들도 백인을 제치고 흑인이 이기도록 판결 내리는 걸 보지 못했거든..."

진실의 힘으로도 흑인에 대한 배심원들의 편견을 깨부수지 못한 것일까? 또한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배심원들은 톰에게 유죄판결을 내렸고 감옥에서 탈주를 시도하던 톰은 17발의 총을 맞고 사망한다.

앵무새를 죽인-'인간의 편견'

'앵무새 죽이기'란 아무런 해가 없는 것을 죽인다는 뜻이다.

타인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오히려 남모르게 도움을 베풀었던 톰과 부래들리가 바로 '앵무새'였던 것이다.

피해자임에도 흑인이라는 리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톰, 흑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그를 죄인으로 만든 것이다.

마을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은둔자 부래들리, '나'와 다르다는 편견과 오해들이 그를 괴짜로 만든 것이다.

작가 허퍼리가 직접 겪은 체험과 목격한 사건을 바탕으로 그려낸 이 소설은 인종차별 문제를 넘어서 계급, 성별, 나이, 배경 등 수많은 편견과 독선에 얼룩진 현대사회에서 독자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책이 아닐까 싶다.

수많은 편견에 둘러싸여 사는 우리들... 어쩌면 편견 없는 사회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어디에 있을지 모를 '앵무새'를 마음에 간직하고 자신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한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조금은 더 나은 나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새책 소개]

## 21세기 중국조선족문학작품선집(2010-2019) (중편소설선)

21세기 중국조선족문학작품선집(2010-2019) 《중편소설선》(1)에는 채운산의 <땅의 자식들>, 김영자의 <빨간 느티나무>, 구호준의 <내 마음의 영각소리>, 김혁의 <뽕>, 금이의 <노란 해바라기꽃>, 최국철의 <돌아라... 우리창밖으로 돌아라...>, 립원춘의 <신도시인> 등 7편의 중편소설이 수록되었다.

21세기 중국조선족문학작품선집(2010-2019) 《중편소설선》(2)에는 조성희의 <사간려행>, 채국범의 <노크>, 김경하의 <겨울개구리>, 허련순의 <천적>, 조원익의 <아주 고요한 하루의 아주 은밀한 꽃잠>, 박일익의 <저물지 않는 들녘>, 리혜선의 <완행열차> 등 7편의 중편소설이 수록되었다.

21세기 중국조선족문학작품선집(2010-2019) 《중편소설선》에 수록된 작품들은 해당 시기 중국 조선족의 생활상을 비교적 짙게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시대 변화와 사회발전의 흐름 속에서 살아 가고 있는 사람들의 리상과 랑만, 분투와 노력을 읽을 수 있으며 아울러 그들의 가치 선택과 의지, 고민과 아픔도 읽을 수 있다.

문학이란 인간과 우주, 작가와 독

자간의 교차적인 대화이다. 문학을 통하여 인간은 인류의 신성함을 지향하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 고민과 고통을 발산하고 나와 너, 너와 나의 어울림과 생명의 가치를 추구해간다. 이러한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를 승화시키는 훌륭한 인생수업으로 될 것이다.

21세기 중국조선족문학작품선집(2010-2019) 《중편소설선》은 21세기 중국조선족문학작품선집(2010-2019) 편찬위원회에서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발표된 대표적인 중편소설을 선정하여 편찬한 것이다. 편찬위원회에서는 편찬 과정에서 소설의 대표성, 작품의 혁신적인 가치, 창작 기법과 형식, 언어 및 다양한 연령층 작가의 작품을 선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작품집에 수록된 중편소설들은 모두 중국 조선족문학의 새로운 기상과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력작들로 시대성과 민족성을 구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인간 생존 상태에 대한 냉정도 드러냄으로써 반복해서 읽을 가치가 있는 수작들이다.

/연변인민출판사

[독서칼럼]

# 108명 호한들과 춤을

— 《수호전》을 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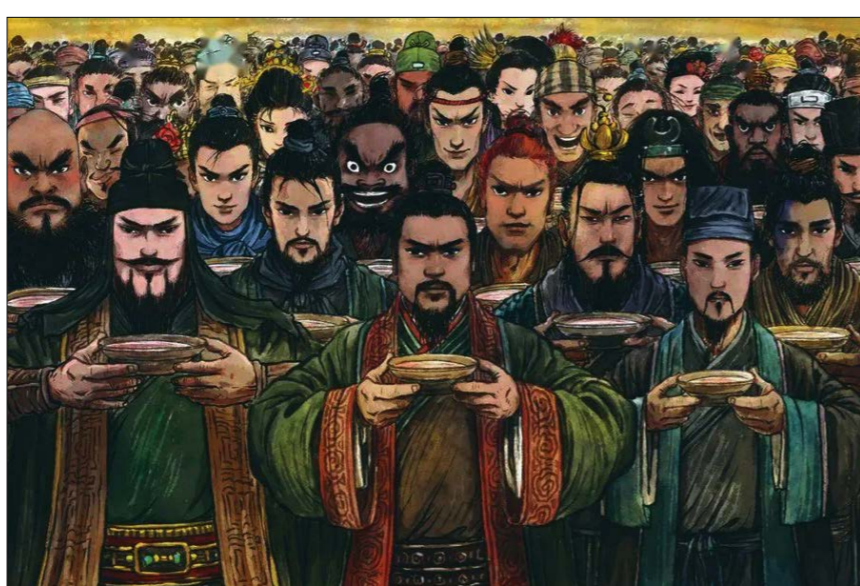
일전 연결시의 도심을 지나다가 광장 부근의 한 음식점에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구멍가게 앞에는 줄지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는데 문전성시를 이룬 그 음식점의 이름은 '무대랑 호떡집'이었다.

오척이 못되는 난쟁이 키에 지저리 못생긴 얼굴, 사람들의 구박명어리로 살아가다 결국에는 바람난 요부인 녀편네 반금련에게 독살당하고 만 《수호전》 속 비운의 인물, 그러한 알량한 인물이 오늘날에는 음식에 상까지 박고 '부활'하고 있는 경상에 나는 그만 감개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우리의 4대 고전 《수호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모두의 뇌리 속에 미련을 자국하는 맛나는 요소로 내내 스며드는 것이다.

나는 4대 명작중에서 《수호전》을 맨처음 읽었다. 어문교원이었던 어머니 덕에 소학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철자를 다 떼었던 나는 당시 4권본으로 나온 《수호전》을 누구보다 앞서 읽었다.

80만의 군사를 거느린 교두였지만 친구와 호색한의 간계에 들어 하루 아침에 높은 직을 때우고 정배살이를 떠나야 했던 정직하나 불운한 립춘의 이야기며, 버드나무를 뿌리 채 뽑은 우직하나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로지심의 이야기며, 맨손으로 범을 때려잡은 현결찬 무송의 이야기며는 애된 나의 가슴을 강타하기에 족했고 감격으로 울렁이게 했고 들쭉게 했다.

그 크낙한 감수에 못이겨 방과후 소조공부가 끝난 뒤면 나는 아이들에게 《수호전》의 이채로운 장절을 이야기 해주곤 했다. 총이 10여명이 오구구



모여앉아 양말 구린내가 진동하는 방에서 재봉침 우에 올라앉아 나는 그 무슨 옛 차집의 평서(評書) 이야기 군처럼 《수호전》의 주요 장절을 나를 뽑아 내리엮곤 했다.

그때 우리는 너나가 《수호전》 속 108 호한들의 별호를 외우는 내기를 하기도 했다.

'급시우' 송강, '지다성' 오용, '표자두' 립춘, '화화상' 로지심, '행자' 무송, '청면수' 양지, '흑선풍' 리규... 어쩌면 구구단도 잘못 외우던 애들이 용장들의 호와 이름만은 일점불차 없이 '얼음판에 표주박 밀듯' 술술 외웠다.

소설가가 되고 지천명을 넘긴 나이에도 《수호전》은 4대 명작과 더불어 '내 인생의 책 리스트'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스토리가 주는 매력에 환혹되어 무송이 범을 때려잡은 부분을 리메이크한 소설을 써서 발표하기도 했다.

《수호전》은 명나라초의 소설가 시

내암에 의해 세상에 나왔다. 복송시기 송강을 위시로 한 108명 영웅호한들이 운명처럼 랑산박에 모여들어 토호를 때려잡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의기가 하늘을 찌르는 이야기를 명쾌하고 생동하게 엮고 있다. 그로써 당시의 사회상과 통치지배계급의 잔혹한 폭정과 부패를 까발아놓을 수난받는 로고대중의 반항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폭정에 항거해 나선 108명 호한들은 모두가 용감무쌍했고 지혜로 가득했다. 그들은 부패한 관리들과 두려움 없이 맞서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替天行道) 했다. 비록 그들의 거사는 비극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의기로 넘치는 과정은 이 장회소설의 갈피갈피에 스며들어 읽는 이들로 하여금 격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했다.

오늘 소설가의 시안으로 다시 읽으니 《수호전》은 소설문학의 전범을 빼어나게 보여준다.

■ 김혁